

25

독도 방문



독도 방문

독도는 연평균 21만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0.4%에 해당한다. 연간 700~900회 운항되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15%~30%가 결항될 수 있다.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포항, 후포 (울진), 묵호 (동해), 강릉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를 경유해야 한다. 울릉도 저동, 사동,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독도행 여객선으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독도 입도는 기상 여건, 선박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독도 입도 시 동도 선착장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다. 관광 목적이 아닌 특수목적의 경우 울릉군에 입도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26

독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독도의 노래

1967년에 발매된 '독도의 섬지기'는 신지현이 불렀으며, 김문응이 작사하고 정주희가 작곡한 곡이다. 이 곡은 당시 첫 독도 주민인 최종덕 씨를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에도 독도와 관련된 노래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가수 이소정이 '아일랜드'라는 독도 노래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으며, 독도를 아름답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한 노래들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이를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다.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독도의 섬지기' (The Island of Dokdo). The score is written in Korean and includes the title '독도의 섬지기' and the lyrics '독도대롱이 낚아오네'.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A and B, with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eble clef, key signature (one sharp), and time signature (3/4).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include the phrase 'We're over the sea'. The score is accompanied by a video of a woman in a patterned jacket standing on a rocky coastline overlooking the sea. The video has a blue tint and the text 'We're over the sea' is overlaid at the bottom.

26

독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독도 교육

독도 교육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운영,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독도교육주간 운영,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독도 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독도체험관을 구축하고, 독도교육주간이 학교에서 연중 한 주 동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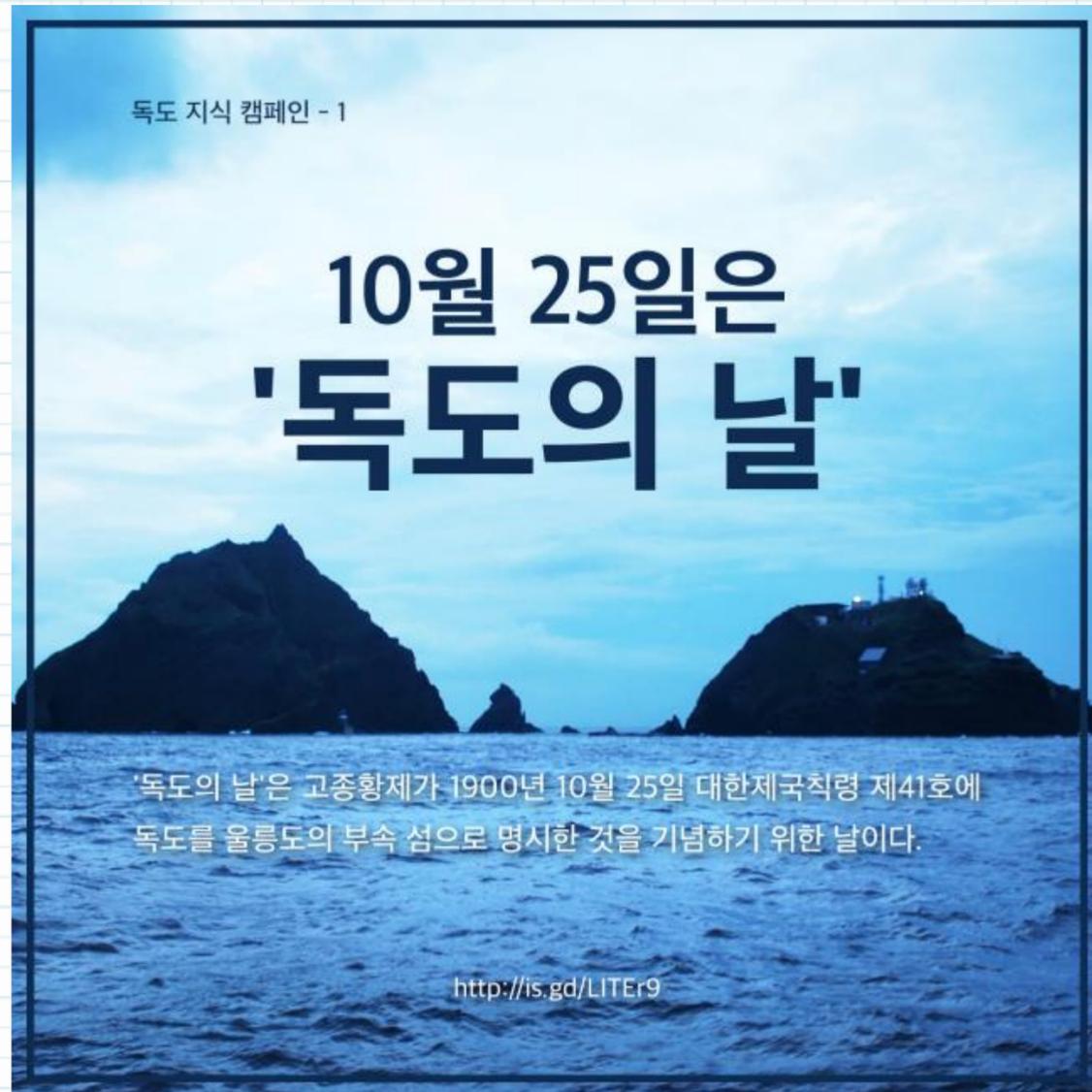
27

독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독도지킴이 학교

독도지킴이학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동아리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120개 학교를 선정하여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고,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용화초등학교의 '독도 더불어 동아리', 중마고등학교의 'JM 독도지킴이' 등 이처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독도를 보다 잘 이해하려 노력한다.



독도의 날

독도의 날: 매년 10월 25일은 독도를 수호하는 민간단체인 '독도 수호대'에서 지정한 '독도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독도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기획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29

독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



독도 경비대원 사건

한국 전쟁 후 독도는 한국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었으나,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1953년, 독도 경비대원들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하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은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30

독도의 미래 전망과 계획



독도동아리

독도동아리 활동: 대학 독도동아리들은 비대면으로 다양한 독도 수호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아리 별 특색을 살린 온택트 방식으로 활동하며,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30

독도의 미래 전망과 계획



독도버스

독도버스: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독도버스'가 있다. 독도버스는 독도를 테마로 구성된 금융 기반 메타버스로, 도민권을 NFT 형식으로 발급받아 가상 현실 공간에서 독도를 체험하고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독도 수호 활동은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며, 민간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도를 지키고 있다.

31 독도 관련 SNS 활동과 캠페인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는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활동이다.

K-POP 팬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SNS에서 '안남회'란 아이디를 쓰는 A모씨의 제안에 응답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31

독도 관련 SNS 활동과 캠페인



독도사랑 SNS 기자단

독도사랑 SNS 기자단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SNS를 통해 '독도'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SNS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실상을 알리는데 강점이 있다. 기자단은 독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취재하여 SNS에 올리는 '기자' 활동을 하며, 홍보 영상, 글,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31

독도 관련 SNS 활동과 캠페인



독도재단

독도재단은 민간인의 독도수호 활동과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독도재단은 독도의 역사, 생태, 자연 교육을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함양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GO(비정부기구)

독도 수호를 위한 NGO(비정부기구)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의 주권을 지키고 국제사회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캠페인 및 홍보, 국내 교육 및 활동, 국제 협력 및 네트워킹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독도 수호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NGO들은 국제 기구와 협력하고, 다른 국가의 비슷한 활동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이러한 NGO들의 노력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3

독도를 주제로 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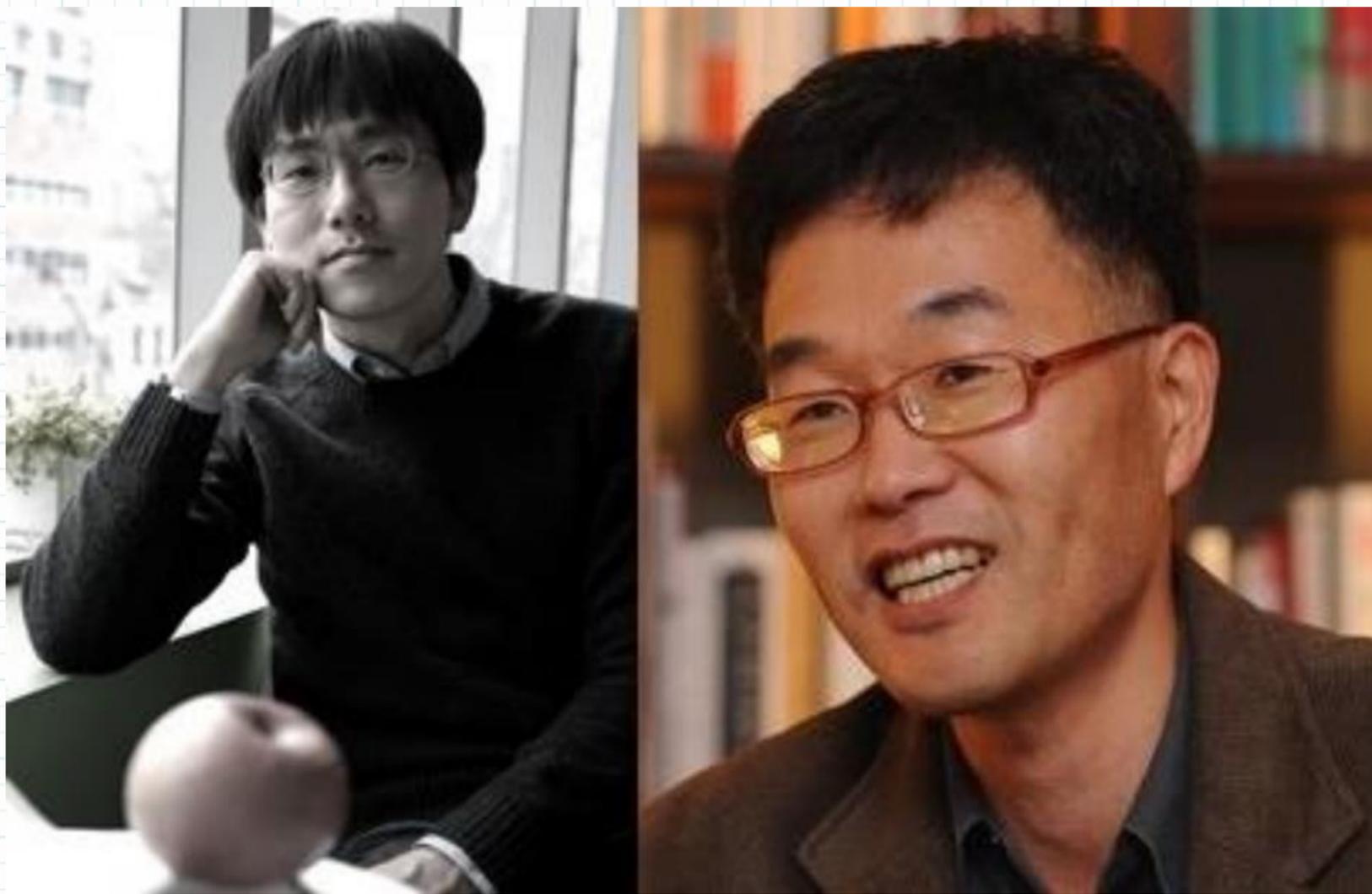


“독도” - 정일근

정일근 시인은 대한민국의 시인으로, 그의 시 중 하나인 "독도"는 독도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일근 시인은 그의 작품을 통해 독도의 자연 경관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정일근 시인의 "독도"는 시집이나 문학 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 전문을 찾으려면 도서관에서 시집을 열람하거나 문학 관련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기를 권한다.

33

독도를 주제로 한 시



“독도는 우리 땅” - 김종일

“독도는 우리 땅”은 시인 김종일의 시로, 독도의 역사적, 정치적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작품이다. 김종일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에 대한 애정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김종일 시인의 “독도는 우리 땅”은 그 제목 자체로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시를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 전문은 김종일 시인의 시집이나 문학 관련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독도를 주제로 한 시



“독도는 슬프다” - 김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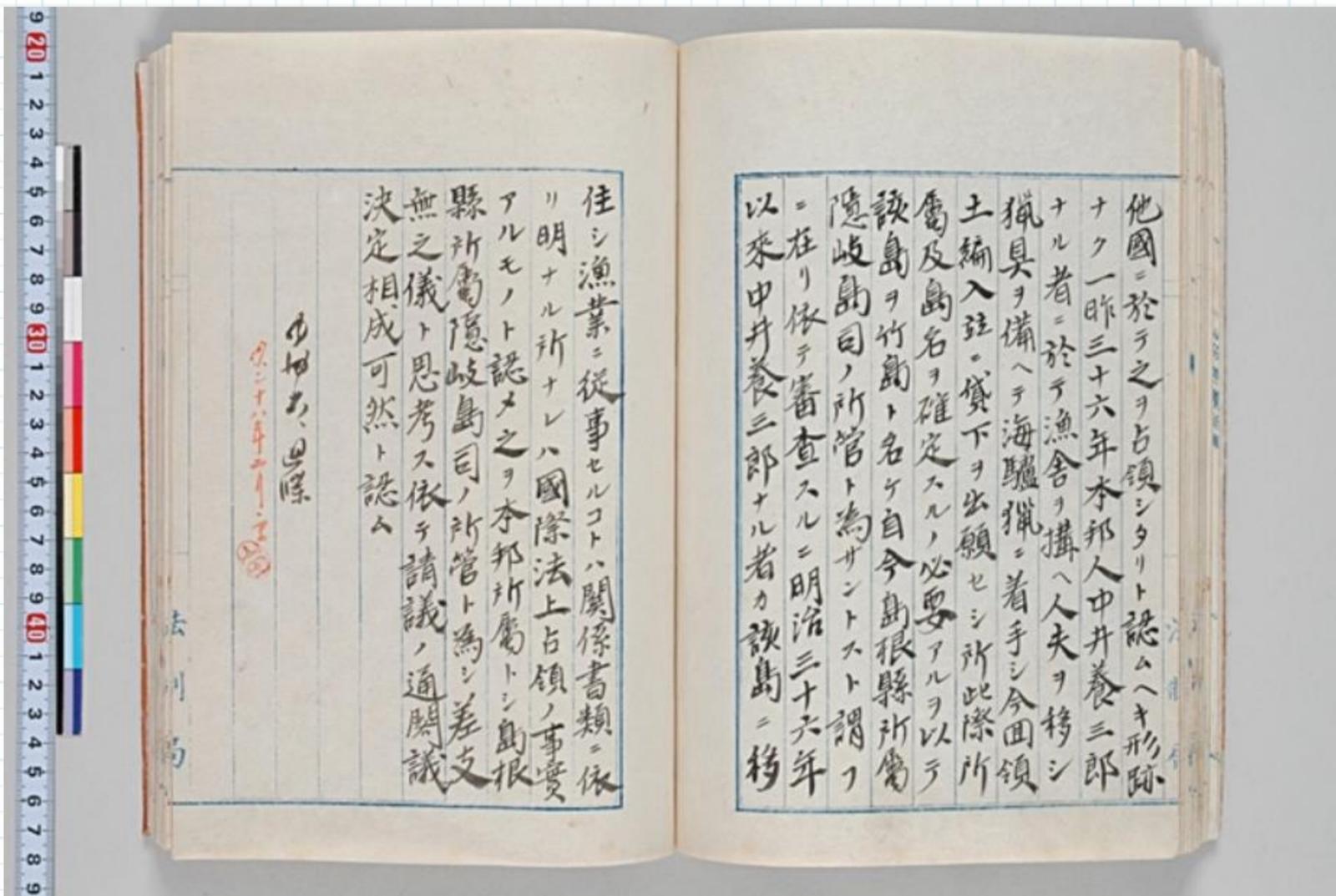
“독도는 슬프다”는 김종철 시인의 작품으로, 독도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김종철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독도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곳에 얽힌 슬픈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독도는 슬프다”는 김종철 시인의 작품 중 하나로, 독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역사적 이해를 담고 있다. 이 시를 통해 독도의 복잡한 감정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 전문은 김종철 시인의 시집이나 문학 관련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34

독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시작점으로, 이후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35

독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



일제 강점기와 독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 동안, 독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 자원 착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의 식민지 수탈 정책이 진행되었다.

36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



외교적 대응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독도에 관한 다국어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며, 국제 회의나 포럼에서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6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



법적 대응

한국은 독도를 행정적으로 울릉군에 속한 독도리로 편입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도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37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

외교적 대응

외교 문서: 일본 외무성은 매년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외교 청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 국제 회의 및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기구에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한국의 입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자 회담: 한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일본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7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



법적 대응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 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법률 제정: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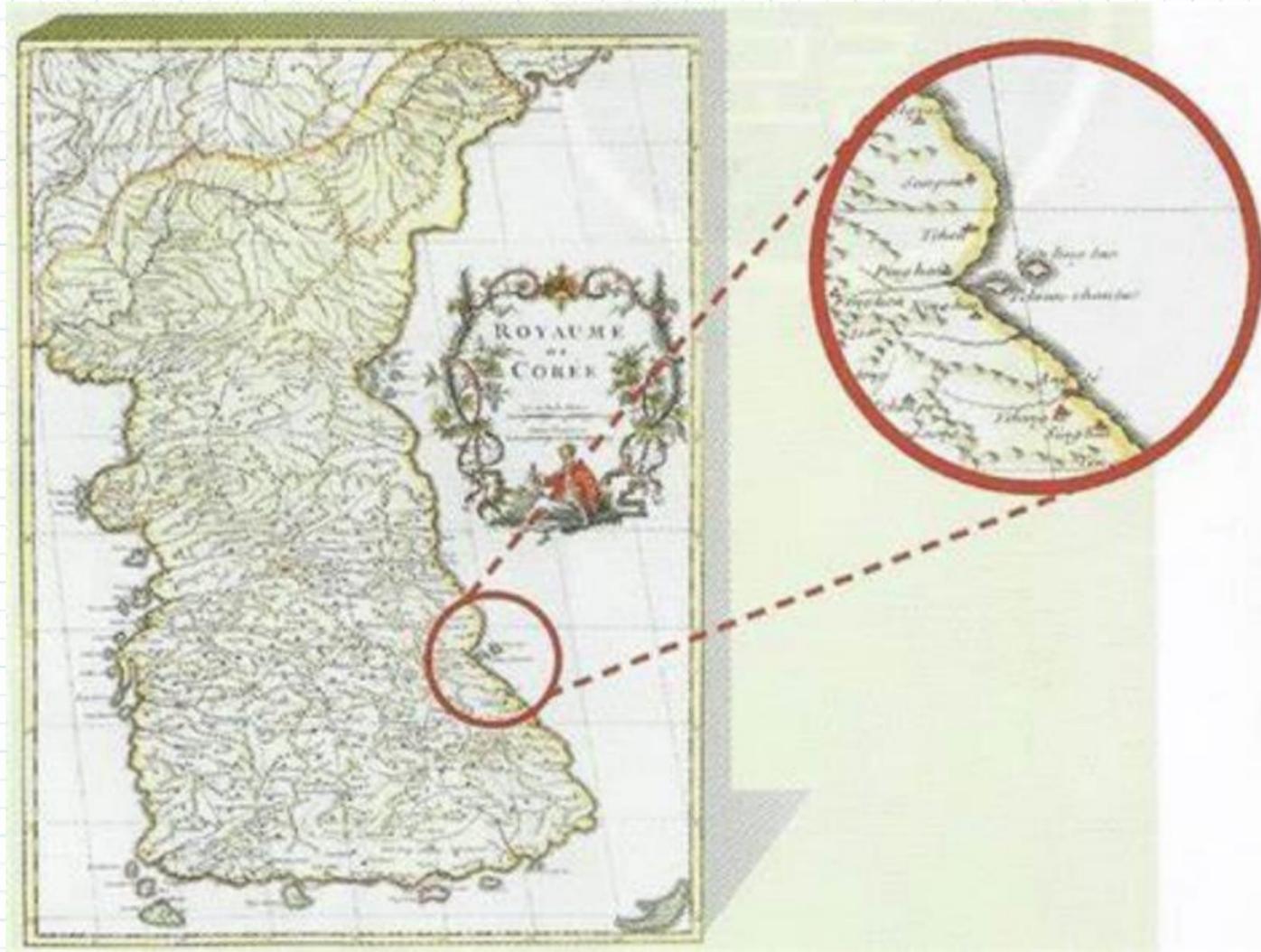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



군사적 대응

해상보안청 활동: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영해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 경비를 실시하고 있다.

방위 정책: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의 방위를 위해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

독도를 방문한 서양인들의 시각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18세기 서양인이 그린 지도에서 독도를 발견한 사례가 있다. 이 지도는 조선 왕국전도라고도 불리며,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한반도 지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동해 위에 선명한 두 개의 섬이 표기되어 있는데, 중국어 발음으로 '울릉도'와 '천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중 '천산도'는 당시 '우산도'라고 불렀던 독도의 한자를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아시아지도

1896년 독일에서 제작된 교육용 지리부도의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의 위치가 명백하게 표시돼 있다. 이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양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는 일본 해양경계선 밖에 속해 한국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도는 독일의 유명 지도 제작자인 카를 디르케가 편집했다. 디르케의 지리부도인 아틀라스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한국땅 표시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독도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서양의 지도에 표시되었던 것은 19세기 말에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일본의 교과서 지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감사합니다

22313334
박병국